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POWER

가제 : 능력

저자 : Naomi Alderman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6년 10월 27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SF



런던 도서전 주요 소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네 명의 소녀들, 절체절명의 순간 드러나기 시작한 무시무시한 능력의 실체
원한다면 몸에서 전기를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남을 해할 수도 있다면? 영국 런던, 미국 뉴잉글랜드와 남부 어느 마을,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각자 나이도, 살아가는 모습도 모두 다른 네 명의 소녀들이 그 특별한 능력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들은 누구에 의해, 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었을까? 네 명의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이들의 안내자가 되어, 가장 적절할 시점에, 가장 필요한 순간 손 끝으로 전기를 흘려 보내도록 지시한다. 이 목소리는 누구일까?

룩시는 엄마 손에 이끌려 벽장에 갇힐 때만 해도 그 날 그토록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자주 끌려 들어가서 이제는 익숙해진 벽장 속의 어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문에 달린 나사못을 손톱으로 돌려서 풀어버릴 수 있지만, 그래 봐야 다른 곳에 갇힐 것이 뻔하기에 룩시는 엄마가 화를 풀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밤 9시 30분경, 벌컥 열린 벽장 문 앞에는 흉악한 인상의 낯선 남자 두 명이 서 있었다. 한 놈은 엄마의 목을 움켜 쥔 채로. 바로 그 순간, 룩시는 몸 속에서 서서히 차오르는 뜨거운 기운을 느꼈다. 온 몸이 따끔따끔하고,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양쪽 귀에 피가 물리는 기분이 들더니 등, 어깨, 쇄골 아래로 뜨끈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묘한 느낌도 들었다. 그 때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강한 아이야. 할 수 있어.” 룩시는 엄마의 목에 날카로운 칼을 대고 있는 남자에게 덤벼들어, 자신도 모르게 남자의 손목을 움켜 쥐었다. 가슴 안쪽을 심하게 쥐어 찢는 고통이 몰

려오는 찰나, 남자는 입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그의 몸에는 록시가 붙잡았던 손목부터 시작하여 팔을 타고 올라가 목까지 시뻘건 고사리 모양의 흉터가 남아있었다. 열네 살인 록시가 처음으로 능력을 발견한 날이었다.

‘몽고메리 테일러’라는 고상한 성을 가진 부부의 수양딸로 살던 앨리의 상황은 많이 달랐다. 부부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좋은 일을 한답시고 앨리를 데려온 지도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다. 3-4년 전, 앨리는 저녁 식탁에서 포크에 자신의 손끝이 닿으면 작은 불꽃이 타닥, 튀어 오른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 때부터 머릿속에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말을 걸더니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능력을 키우라고, 부지런히 연습을 하라고 속삭였다. 앨리는 수업을 빼먹고 몰래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내키면 아무 남자아이들에게 몸을 내맡기며 살았지만 필요할 때는 이 특별한 기술을 심분 활용했다.

온 세상의 질서를 바꾸어놓을 수 있는 힘, 신화, 폭력, 정치, 종교가 혼합된 놀라운 이야기

문제의 그 날도, 앨리는 싫다는데 억지로 재미를 보려는 두 남학생들의 거드랑이를 약한 전류로 지져서 혼을 내주고 집에 돌아왔다. 역시나 예상대로, 몽고메리 테일러 씨가 앨리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열여섯 살밖에 안된 수양딸을 겁탈하려고 기다리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 몽고메리 테일러 부인도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더러운 범죄 행각을 뻔히 알고도 묵인하고 있으니 한 몫 거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부부를 누구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고 있지만, 앨리만은 두 사람의 더러운 본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날, 앨리에게 말을 걸던 목소리는 마침내 허락했다. 몽고메리 테일러를 마음껏 처단해도 된다고.

머나먼 나이지리아에서는 갓 대학 신입생이 된 툰데가 묘한 매력을 지닌 소녀를 발견한다. 사진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의 사촌 여동생이라는 그 소녀의 이름은 에누마. 툰데는 왠지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에누마의 미소와 발랄한 농담, 여성미가 드러나기 시작한 몸매를 보자마자 폭 빠져 버렸다. 하지만 가까스로 첫 키스를 시도하려던 순간, 툰데는 에누마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에누마와 맞잡은 팔에 처음에는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했다. 심장이 심하게 쿵광대고 조여오는데 그런 툰데를 보며 에누마는 뭐가 그리 웃긴지 깔깔댔다. 잠시 후에는 에누마가 잡은 팔에 강한 통증이 밀려오더니 아무 감각이 없었다. 다행히 이런 증상들은 사라졌지만, 그 때부터 툰데는 캠코더로 에누마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왠지 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던 느낌은 과연 착각이 아니었다. 에누마가 마음대로 손에 전기를 일으키는 장면이 포착되고, 툰데가 이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전 세계가 시끄러워진다.

이들과 함께 뉴잉글랜드 상원의원의 어린 딸까지, 네 소녀는 능력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불행한 순간을 맞이하고 그 날부터 내면의 균형이 깨져버린 것을 느낀다.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몸에서 전기를 만들고 발산하기 시작한 순간, 온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세상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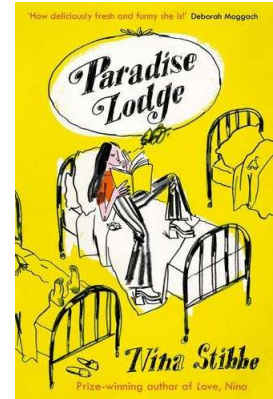
서를 바꾸어놓을 수 있는 힘, 이 힘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폭력이 낳는 파괴적인 결과, 종교와 성 역할, 정치를 위장한 가증스러운 범죄들,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네 명의 소녀가 경험하는 일들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그 뿌리에는 보편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인간의 본성과 사회 질서에 관한 고민을 안겨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 소개>

나오미 앨더맨(Naomi Alderman)은 「옵저버」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데뷔 소설 『Disobedience』로 ‘오렌지 상(Orange Award)’ 신인작가 부문을 수상했다. 이어 2010년과 2012년에 소설 『The Lessons』과 『The Liar’s Gospel』을 발표했다.

제목 : PARADISE LODGE
가제 : 파라다이스 요양원
저자 : Nina Stibbe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6년 6월 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닉 혼비와 비교되는 National Book Awards 수상 'Love Nina'의 작가 Nina Stibbe 의 신작.

간호보조사로 일하게 된 열다섯 살 소녀, 노인들과 함께 하는 황당하고 감동적인 시간들

회고록 『Love Nina』로 큰 화제를 낳은 영국 작가 니나 스티브가 따뜻한 감동에 배꼽 잡는 유머가 잘 버무려진 소설을 완성했다. 노르웨이, 헝가리,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판권계약이 체결된 전작 소설 『MAN AT THE HELM』에서는 엄마의 좋은 짝이자 등직한 가장이 되어 줄 새 아버지를 들이기로 결심한 십대 아이들의 엉뚱한 계획을 그렸다면, 이번 소설에서는 소외 받는 노인들의 삶으로 눈을 돌려 어느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펼쳐 보인다.

리지가 파라다이스 요양원에서 일하게 된 건 전적으로 미란다 덕분이었다. 간호보조사로 일할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본 미란다가 리지에게 가보라고 알려준 것이다. 쾌활하고 인정이 많은 성격이기만 하면 나이는 상관없다는 문구를 보고, 리지는 미란다를 설득해 함께 면접을 보러 갔다. 때는 1977년, 열다섯 살인 리지는 또래 친구들이 즐기던 펑크족 생활도 별로 내키지 않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도 아니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도 접하고 용돈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미란다는 홍콩에서 온 남자친구 마이크에게 예쁘게 보이려면 화장품이며 옷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리지에게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할 그런 로맨틱하고 절실한 이유가 딱히 없었다. 엄마가 맨날 사오는 싸구려 삼푸며 커피가 신물이 날 지경인데, 돈을 좀 벌면 TV에서 한창 광고하는 최고급 '맥주 삼푸'와 '맥스웰 커피'를 살 수 있으려나? 이런 소박한 바람이 전부였다.

요양원에 찾아온 폐업 위기…… 마음 따뜻한 괴짜들이 힘을 합쳐 마련한 대대적인 회생 계획

물론 요양원 일은 자동판매기를 톡 쳐서 떨어지는 동전을 모으거나 전단지 아르바이트로 푼돈을 버는 것보다야 훨씬 안정적인 일이었다. 리지는 자질구레한 일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일상에 진절머리가 나서 처음에는 요양원 일이 재미있기만 했다. 하지만 노인들에 관한 지식이라곤 치아가 성치 않으니 딱딱한 곡물 빵을 드리면 안 된다는 정도가 전부일뿐, 목욕을 끝낸 할머니가 욕조에서 일어나서 나올 수 있도록 부축하고 돕는 요령 같은 건 전혀 알지 못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 모든 기술을 익혀야 했다. 그렇게 미란다와 리지가 하나 같이 개성 만점인 괴짜 직원들이나 요양 도우미들 사이에서 하나씩 일을 배우는 동안, 파라다이스 요양원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다. 라이벌 요양원이 등장해 환자들을 모조리 빼앗아가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기 시작한 것이다. 주차장도 훨씬 넓고 편리한데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즐길 수 있는 운동도 종류가 더 많다고 자랑해대는 이 새 요양원은 되도록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노인들의 마음을 뒤흔든다. 이대로 노인들을 다 뺏기고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리지는, 미란다와 미란단의 남자친구까지 끌어 모아서 대대적인 작전을 세운다. 목표는 단 하나, 너무 늦기 전에 파라다이스 요양원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이다.

재혼한 엄마, 자기 밖에 모르는 가족들 속에 사느라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던 소속감을 파라다이스 요양원에서 생전 처음 느낀 리지가 요양원에 찾아온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웃기지만 눈물 나는 노인들의 현실, 언젠가 모두가 맞이하게 될, 나이든 이후의 삶에 관한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이야기 속에서 십대 소녀인 리지는 때로는 답답한 현실에 짜증내고, 때로는 성취감을 느끼고, 패배감에 무너지는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점차 자아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 간다.

<저자 소개>

니나 스티브(Nina Stibbe)는 회고록 『Love Nina』로 ‘워터스톤 올해의 도서 상(Waterstones Book of the Year Award)’ 결승 후보에 오르고 2014년 ‘전국 도서상(National Book Awards)’ 올해의 도서 비소설 부문을 수상했다. 발표 후 큰 호평을 받은 소설 『MAN AT THE HELM』으로는 ‘볼링거 에브리맨 우드하우스 상(Bollinger Everyman Wodehouse Prize)’ 결승 후보에 올랐다.

제목 : FIRST LOVE

가제 : 첫사랑

저자 : Gwendoline Riley

출판사: Granta

발행일: 2017년 봄

분량 : -

장르 : Woman's Fiction



영국 Granta Publication 판권 계약 완료! 2008년 서머릿 몸 상 수상작가의 최신작!

사랑하지만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관계, 서로를 조금씩 부식시키는 두 남녀의 불행한 결혼생활 전혀 맞지 않고 해로운 영향만 주는 두 남녀가 함께 산다면? 작가인 네브와 그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에드윈의 결혼 생활이 딱 그렇다. 서로 멀쩡히 살아 숨쉬는 것이 경이롭다고 느껴질 만큼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 마치 평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격렬한 갈등과 대립으로 채우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사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네브는 좀더 좁은 에드윈의 집에 들어와서 살다가 18개월이 지나서야 첫 날 가져온 짐을 풀었다. 작은 테라스에서 내다보면 다 헤진 가방을 둘러 매고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의 모습이 다 보이는 런던의 작은 아파트. 그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귀가를 반기며 꼭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남아 있었다. 마흔을 넘긴 에드윈은 네브에게 한없이 애정을 퍼붓다가도 한 번 예민해지면 폭언을 서슴지 않는 다혈질이였다. 게다가 심장 수술을 받은 일 때문에 언제 갑자기 숨이 멎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네브에게 잠시도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털어 놓을 정도였다. 급기야 무릎에도 섬유근육통이 찾아와 그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네브는 엄마가 친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양아버지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을 다 감내하며 살아야 했고, 커서는 홀로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에드윈에게 정착했다. 처음에는 동거로 시작했지만, 그의 개인 변호사가 이야기한 결혼 제안을 받아들인 두 사람은 결혼식 없이 첼시의登記소에 가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6월의 어느 무더운 날, 태양이 모든 걸 태워버릴 듯 작열하던 그 날이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 되었다.

네브는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글을 쓰다가 대학에서 학기가 시작되면 일주일에 두 번씩 학생들을 가르치러 갔다. 에드윈과 함께 살면서 조금 안정되나 싶었던 혼란스러움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7개월 전부터는 정신의학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어느 날부터 의사와 마주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짜증스러워지는 바람에 그만두고 말았다. 홀로 친구 집이며 월셋방을 전전하면서 6년을 방황하다가 결혼까지 했지만, 네브는 여전히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격한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

들었다. 혼자 지낼 때의 혼란에 비하면 다소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은 행복하게 느꼈다. 현재는 정말로 괜찮았지만, 네브를 괴롭히는 건 과거의 시간들이었다.

지울 수 없는 기억, 다스릴 수 없는 감정, 세밀한 묘사로 와해된 관계의 뿌리를 헤집는 소설

네브의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조안나가 러시아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에, 두 사람은 5년 만에 재회했다. 맨체스터에서 연극을 가르치다가 모스크바로 건너가 고등학교에서 심리 상담사로 일한다는 조안나는 네브와 에드윈이 사는 집에도 잠시 들러 커피를 마시고 돌아갔다. 에드윈은 처음 본 조안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네브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안나를 보면서 새록새록 솟아나는 과거의 일들 때문이었다. 바로 다음 날에는 사촌인 패트리샤에게서 친아버지에 대해 전할 소식이 있으니 바로 연락을 해달라는 이메일이 왔다. 얼마나 다급한 일인지 패트리샤는 에드윈의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전화를 걸었다. 네브는 속이 메스꺼울 만큼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회피하고만 싶었다. 하지만 결국 에드윈을 통해, 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말았다. 이후 며칠을 눈물바다로 지내는 네브를 보고 에드윈은 임종을 지키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는 줄로 생각했지만, 멈추지 않는 눈물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 몇 년 전에 엄마가 네브에게 건넨 이상한 수첩에 적힌 기록들, 부모님이 결혼한지 8년이 되던 해에 엄마가 직접 썼다는 그 기록이 불러일으킨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버렸다. ‘빵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젓 먹이는데 와서 머리를 때렸다.’ ‘두통으로 아파하는데 머리를 때렸다.’ ‘척추 아랫부분을 발로 몇 번이나 걷어찼다.’ ‘프라이팬을 던져서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네브로선 상상도 하지 못했던 폭행의 기억, 학대의 기록이었다.

인물의 감정과 행동, 소소한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진 작가는 정확하고 예민한 문장으로 서서히 서로에게 독이 되어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치밀하게 그리며, 심하게 뒤틀려버린 관계의 뿌리가 어디인지 바닥까지 파고들어가 헤집는다.

<저자 소개>

그웬돌린 라일리(Gwendoline Riley)는 『Cold Water』 (2002), 『Sick Notes』 (2004), 『Joshua Spassky』 (2007), 『Opposed Positions』 (2012) 등 네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첫 번째 소설로 ‘베티 트라스크 상(Betty Trask Award)’을 수상했다. 『Joshua Spassky』로 2008년에 ‘서머셋 몸(Somerset Maugham Award)’ 상을 수상했다.

제목 : SAY NOTHING

가제 : 침묵할 것

저자 : Brad Parks

출판사: Dutton

발행일: 2017년

분량 : 472페이지

장르 : 스릴러



샤머스상 수상작가 Brad Parks의 최신작!

판사의 딸을 납치한 마약 거래 집단,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한 교활한 움직임과 음모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수요일, 스캇 샘슨 판사는 오후 네 시에 사무실에서 나와 쌍둥이 두 딸을 데리러 학교로 향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는 지역 YMCA에서 두 꼬맹이들과 신나게 물장구를 치면서 보낸다. 세 부녀가 ‘아빠와 함께 수영하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도 벌써 3년째이다 보니, 웬만한 큰 일이 없는 한 빼먹지 않는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다. 처음에는 샘, 엠마 두 딸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 기술로 수영을 가르쳐주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 수요일의 이 행사는 ‘팬케이크의 날’로 정한 일요일이나 ‘모자 쓰고 춤추는 날’로 정한 월요일처럼 스캇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일상에서 얻은 에너지는 고된 판사 업무도 그럭저럭 해낼 수 있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놀 생각에 미소를 머금고 차를 몰던 스캇에게 아내 엘리슨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서, 그 평온함은 산산이 부서졌다. “깜박 잊고 말을 못했는데, 오늘 애들 병원에 갈 일이 있어. 학교에 내가 데리러 갈게.” 스캇은 고대하던 물놀이 시간을 다음 주로 미뤄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워하면서, 요크 강변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두 시간 뒤, 집으로 퇴근한 아내 곁에 샘도 엠마도 없었다. 아내 혼자였다.

엘리슨은 정신지체아동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그 날도 평소처럼 일을 하고 제 시간에 퇴근했다. 스캇이 이야기하는 문자메시지는 보낸 적이 없었다. 누군가 엘리슨이 보낸 것처럼 꾸며 스캇을 속인 것이다……. 당황한 부부가 학교로 달려가려는 순간, 스캇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남자 목소리는 두 딸을 자신이 데리고 있다고 하면서, 대뜸 ‘스캐브론’이라는 이름을 꺼냈다. 스캇이 목요일에 재판하기로 되어 있는 마약 사건에 기소된 피고, 그의 이름이 바로 스캐브론이었다. 납치범은 이 재판에서 스캇이 내려야 할 판결을 미리 알려줄 테니 그대로 읽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두 아이들을 손가락부터 차례차례, 잘라버릴 거라고 협박했다.

아이를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젊은 부부, 그들을 쥐고 흔들려는 거대 집단의 치밀한 계획

스캇이 스캐브론 사건에 관한 자료를 처음 받은 건 월요일이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사건 기록을 꼼꼼히 읽고 정리해둔 그로선 이 사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버지니아 해변에서 헤로인과 코카인을 몰래 판매하다가 붙잡힌 스캐브론은 열세 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부터 마약이며 총기 문제로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상습적인 말썽꾼이었다. 하지만 거액이 오가거나 조직적으로 일을 저지른 범죄자라기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잔챙이 마약상에 더 가까웠다. 이번에 어쩌다 연방법원까지 온 것도 발각된 헤로인의 양이 꽤 많아서일 뿐, 체포 당시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고작 200불 정도였고 재산은 고물 자동차 한 대가 전부였다. 그런 놈이 연방 판사의 자녀를, 그것도 둘이나 납치할 만큼 치밀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게다가 샘과 엘리슨이 다니는 학교는 같은 학년 학생이 겨우 다섯 명인 초소형 학교라 모든 교사가 전교생 이름이며 얼굴을 다 알고, 학부모가 미리 지정해서 학교에 등록한 사람만 하교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 스캐브론이라는 작자가 혼자서 저지른 일이 아닌 건 분명했다. 스캇은 재판 서류에 적힌,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범에 주목했다. 스캐브론에게 판매할 마약을 대주던, 거대한 먹이사슬에서 훨씬 더 상위단계에 있는 대형 마약상이었다. 스캇은 실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은 이 공범이 이번 납치에 개입했다고 확신했다.

납치범은 스캐브론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 스캇에게 연락을 해오고,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한 요구 사항들을 들이밀며 스캇을 조종하려 한다. 부부는 두 아이를 무사히 돌려 받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고 각오하지만, 법조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만만치 않았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은 부부에게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전혀 문제 없던 결혼 생활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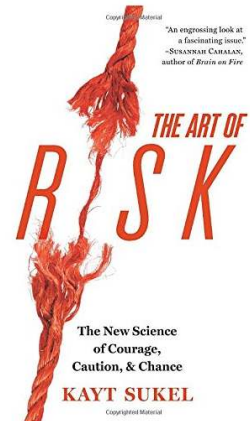
춤춤하게 짜인 계획, 아이를 잃을 지도 모른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 쫓고 쫓기는 싸움이 시작된다.

<저자 소개>

브래드 파크스(Brad Parks)는 「워싱턴 포스트」 등에서 십 년 이상 기자로 일하다가 소설가로 전향했다. 데뷔 소설 『Faces of the Gone』으로 샬머스 상과 미스터리 소설에 부여되는 네로 상(Nero Award)을 수상했으며, 네 번째 소설 『The Good Cop』으로도 샬머스 상을 수상했다.

NON-FICTION

제목 : THE ART OF RISK
가제 : 위험의 예술
저자 : Kayt Sukel
출판사: National Geographic
발행일: 2016년 3월 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과학



일과 사랑, 평범한 삶에서 찾아오는 기회와 위험성의 줄다리기, 그 선택에 관한 과학적 고찰

‘안녕하세요’라고 한 마디만 하면 5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누군가가 인사를 하기 전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0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한 푼도 안 준다고 제안을 한다. 이제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그냥 편안하게 5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기회라면 일단 시도한다. 설사 동전 뒷면이 나와 돈을 아예 못 받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게임의 규칙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동전던지기 전에 걸린 액수가 커지거나, 동전을 여러 번 던질 수 있다면? 가까운 친구나 직장 상사, 중요한 사람, 혹은 매력적인 여성과 경쟁을 해야 한다면? 이 게임에 감정적인 요소가 섞인다면 선택은 바뀔까? 이런 문제를 두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학, 심리학, 신경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고민을 거듭해 왔다. 우리 주변에는 위험한 일인 줄 뻔히 알고도 대담하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성향은 타고나는 것일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일까? 과학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신경과학, 심리학으로 이 문제를 파헤친 최신 연구결과를 실감나는 현실 상황에 적용하여, 위태로운 기회를 선택하게 만드는 배경과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이 개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다.

포커 게임에 통달한 도박꾼, 군대 지휘관, 여러 사람의 생계가 달린 회사 경영자 등 일상적으로 늘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면 실패할 가능성을 뻔히 알고도 가끔은 더 많은 이득을 얻는 쪽을 과감하게 택한다. 그것이 삶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방식이다. 어차피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면, 최대한 분별력 있게 그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유익한 위험과 해로운 위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저자는 광범위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일, 사랑, 일상생활 속에서 내리는 수많은 의사결정의 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상세히 고찰한다.

암벽등반을 즐기는 사람들, 특공대나 특수요원들, 극히 까다로운 수술도 침착하게 해내는 의사

들, 전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오가는 주식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양한 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위험은 물론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위험도 마찬가지로 타고난 유전자나 현재 나이, 성별, 선택하는 순간의 감정, 스트레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서 영향을 준다. 저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그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보다 안정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누구보다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여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패하더라도 훌훌 털고 일어나는 법을 익히는 요령이 폭넓게 제시된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거나 거액이 오가는 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일을 예측하고, 모험을 해보는 일들이 모두 포함되며 이는 인간이 학습하고 삶을 살아가는 중추라는 점에서, 위기에 대처하는 기술은 한번쯤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할 필수 전략일 것이다.

<목차>

1부. 위험한 일은 아주 가끔씩만?

1. 새로운 형태의 모험가로 거듭나기까지
2. 그나저나 위험이란 대체 무엇인가?

2부. 모험가는 타고난다?

3. 위험과 뇌
4. 위험과 유전자
5. 위험과 성별
6. 위험과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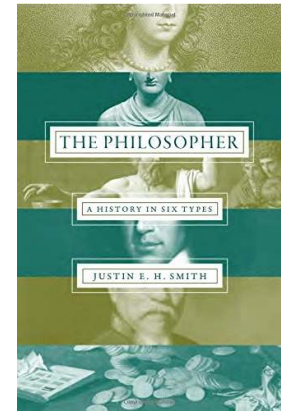
3부. 위험천만한 일을 해야 한다면

7. 위험과 준비
 8. 위험과 관계
 9. 위험과 감정
 10. 위험과 스트레스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케이트 수켈(Kayt Sukel)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인지심리학을 공부하고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심리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열심히 여행을 다니면서 「New Scientist」, 「USA Today」, 「The Washington Post」 등에 과학 분야 기사를 기고해 왔다. 가족여행 전문 사이트 'Travel Savvy Mom (www.travelsavvymom.com)'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제목 : THE PHILOSOPHER
가제 : 철학자
저자 : Justin E. H. Smith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6년 5월 1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철학



철학이란 무엇이고, 철학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대, 장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철학의 역사

철학자인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는 1991년에 발표한 저서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철학은 ‘기존의 개념을 혁신하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철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먼 과거로 거슬러올라가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병 속에 들어간 파리에게 빠져 나갈 입구를 보여주는 일”로 비유하고 철학은 “언어라는 수단에 매혹 당한 지식과 벌이는 싸움”이라고도 표현하면서 철학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내놓았다. 게다가 17세기 자연철학자들은 기상학적인 현상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물리적인 규칙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그 규칙으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들이 들뢰즈와 가타리의 주장을 들었다면 너무나 생소하다고 여겼으리라.

이처럼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은 2,5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변형되고 바뀌었다. 시대마다,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철학자마다 철학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생각도 다양했다. 이에 저자는 위의 두 철학자처럼 철학이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주장을 펼치는 대신, 시대마다 철학자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무 기술서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는 독특한 접근법을 택했다. 역사적 사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철학자 개개인에 대한 자전적인 기록, 타인이 기록한 철학과 철학자에 관한 사실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현재 우리가 생각하거나 알고 있는 철학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 이 책의 목표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다양한 사회 속에서 ‘철학자’라는 이름으로 불린 사람들이 맡았던 역할을 총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 자연철학자, 현자, 잔소리꾼, 금욕주의자, 고위 관료, 그리고 아첨꾼이다. 왜 이런 이름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 다양한 역할을 살펴보는 동시에, 저자는 철학이 특정 시대나 사회에서 단 한 가지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졌는지, 혹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최초로 정의된 ‘철학’의 의미와 전혀 다른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그 모습이 유사한 행위들에도 철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살펴본다. 실제로 철학자들은 각자가 속한 사회에서

이처럼 철학이 ‘아닌’ 행위를 구분해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했고, 물질적인 이익을 바라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사람들과도 분명히 선을 그으려고 애를 썼다. 논리의 법칙을 적용하여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 철학자를 가능하는 이 기준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철학의 가치와 역할을 아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명확한 기준이며 종교, 신화와 철학을 구분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사회적, 시대적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이 책에서 구분하는 철학자의 역할 혹은 ‘직무’에 영향을 주었다.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잊히거나 간과된 철학자의 역사적인 역할을 상세히 추적하는 과정에서, 철학은 보편적인 활동이며 오늘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많은 것을 아우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철학’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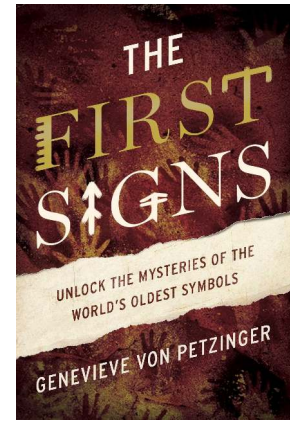
1. 한 가지 생각, 영원한 진실 - 자연철학자
2. ‘필로소피’와 ‘필로소피아’ - 현자
3.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 잔소리꾼
4. 몸과 영혼 - 금욕주의자
5. 산과 계곡 - 고위 관료
6. 돈과 사랑 - 아첨꾼

결론

<저자 소개>

저스틴 E. H. 스미스(Justin E. H. Smith)는 파리 7대학인 디드호 대학교에서 역사와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Nature, Human Nature, and Human Difference: Race in Early Modern Philosophy』, 『Divine Machines: Leibniz and the Sciences of Life』 등이 있으며, 뉴욕타임즈 등 다양한 매체에도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FIRST SIGNS
가제 : 인류 최초의 기호
저자 : Genevieve von Petzinger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6년 5월 3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역사



창의력이 진화한 역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32가지 기호에 담긴 인류의 미스터리를 풀다

일정한 패턴은 더 작은 것에 주목하느라 놓칠 수 있는 큰 현상을 표현하는 열쇠 역할을 한다. 의학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새로운 유행병의 패턴을 보고 어디서, 왜 시작된 질병인지 추적하고, 거시경제학에서도 특정한 패턴을 바탕으로 중국의 한 지역에서 제조업이 하향세로 기운 것과 미국 특정 지역의 실업을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한다. 패턴은 겉보기에 아무 관련이 없는 현상에서 의미를 찾는 단서가 되는 것이다. 고고학자인 저자는 유럽 각지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예술에서 바로 이 패턴을 찾아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목해온 동물이나 사람을 닮은 그림들 말고, 그 바로 옆에 함께 새겨진 기하학적인 상징과 무늬들이 다양한 시대, 다양한 지역에서 놀랍도록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동굴에 살던 인류가 벽에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남긴 손자국이나 엑스(X) 모양, 삼각형, 굽은 점, 평행선, 나선무늬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똑같은 무늬가 동굴 벽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용하던 연장이며 장신구에도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이 추상적인 이미지들에 주목하고, 아직 한 번도 집중적인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던 단순한 형태의 고대 상징에 담긴 의미를 해독하는 일에 뛰어 들었다. 이 책은 유럽 각지의 고대 유적지에서 기하학적인 상징을 찾아 다닌 저자의 여행기이자 인류 최초의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는 기호를 분석한 일종의 암호 해독서다.

저자가 연구한 후기 구석기 시대, 대략 3만년의 기간 동안 인류가 유럽 전역에 남긴 삼각형이며 동그라미, 다양한 형태의 선, 사각형, 점 등 추상적인 기호는 단 32가지로 한정된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호가 활발히 사용되는데, 당시의 인류들도 지금과 비슷한 목적으로, 즉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소유권을 표시하는 등의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로 기호를 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나 의미가 있을까? 그보다 더 흥미진진한 사실은, “대략 어느 시점부터 인류가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라는 의문에 바로 이 기호들이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만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 최초의 인류가 등장했다는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후 발견된 유골들은 이들의 키나 건강상태, 뇌의 크기와 같은 물리적인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본연

의 특성인 ‘창의력’은 언제 처음 발달하기 시작했을까?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비를 막아줄 지붕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추운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사냥 실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인류가 실용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술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언제이며, 왜, 어떤 계기로 그와 같은 특징이 발현되기 시작했을까? 저자는 12만 년 전, 사람이 죽으면 목걸이와 붉은 흙을 함께 묻었던 흔적부터 10만년 전 휴대할 수 있는 연장들을 기하학적 무늬로 장식한 흔적, 그리고 암석화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추상적인 무늬들, 5만년 전부터 갑자기 번성하기 시작한 암석화와 작은 조각상, 장신구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 같은 의문의 답을 찾아본다.

32가지 기호를 바탕으로 원시 인류의 신체적 변화가 아닌 ‘의식의 진화’ 과정을 추적하고 인류가 맨 처음 문화를 창조한 과정을 찾아보는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목차>

- 1장. 두 개의 붉은 점
- 2장. 옛날 옛적에 아프리카에서는
- 3장. 현대적인 생각, 그 최초의 흔적
- 4장. 드문드문 남긴 신호
- 5장. 빙하기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6장. 금성, 사자 인간, 일상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기호들
- 7장. 최초의 군락, 그리고 삶과 죽음
- 8장. 동굴벽화 제작법
- 9장. 시대별 손 모양: 고대 예술의 다양한 스타일
- 10장. 동물, 사람, 요상한 장면들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제네비브 본 펫징어(Genevieve von Petzinger)는 빙하기 유럽의 암석화 분야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신인 학자로, 400곳이 넘는 유적지에서 수집한 5,000 가지의 기호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특히 테드(TED) 강연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TED Global Fellow’로 선정된 데 이어 ‘2013-2015 TED Senior Fellow’로 선정됐다.

제목 : HOW TO BE A PERSON IN THE WORLD

가제 :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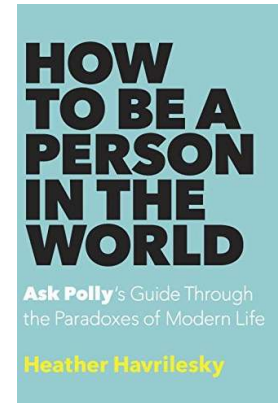
저자 : Heather Havrilesky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16년 7월 12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처세



뉴욕(New York) 매거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더 컷(The Cut)>에서 ‘폴리에게 물어봐’라는 코너를 운영하는 유명 상담사 인 저자가 외로움 배신감, 사랑, 증오, 우울함, 무기력까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상담해드립니다.

독자들이 보낸 각양각색 인생 고민을 상담해온 저자가 특유의 신랄하고 거침없는 조언을 책으로 정리했다. 평생의 꿈을 쫓고 싶는데 그러려면 아주 괜찮은 직장을 때려 치워야 한다면? 사사건건 간섭하는 엄마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면? 아이를 정말 낳고 싶는데 직장에서 인정 받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면? 매주 독자들이 꺼내 놓는 고민에 욕설이나 거친 표현도 마다하지 않으며 따끔한 충고를 해온 저자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내가 과연 남의 인생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고민에 수년 째 시달린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고민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능력껏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고민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수많은 사연들에 응답해왔다. 이 책은 그 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사연들과 그에 대한 저자의 답변들을 모은 것으로, 어떤 상황, 어떤 고민에도 특유의 유머 감각을 절대 잃지 않는 저자의 매력적인 상담 방식에서 상대방에 대한 연민, 애정을 듬뿍 느낄 수 있다.

한 여성은 왜 남자들은 한없이 다정하게 굴다가도 관계가 조금 진지해지려고 하면 슬쩍 발을 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은 인생의 핵심인데 그걸 회피하려는 사람은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보가 아니냐고 잔뜩 화를 내면서, 둘 사이에 충분한 애정이 싹튼 상태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남자들을 비난한다. 저자는 그녀에게 자신이 서른네 살에 소개팅에 나갔다가 딱 그런 타입의 남자를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첫 데이트에 불쑥 “이 만남을 벌써부터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네요.”라고 말하는 상대를 보고 저자 자신도 부아가 치밀어 속으로 욕을 퍼부었지만,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라고 꼬집어 이야기한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말든, 혹은 안타깝게도 상대방을 향한 애정이 갑자기 커져버린 상황일지라도 무작정 미래를 함께 꿈꾸자고 채근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정말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 해도 되는지 객관적으로 내다볼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을 빼려는 남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그 남자를 원하고 사랑하는지부

터 들여다보라는 저자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보다 훨씬 심각한 사연, ‘외도의 근거’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은 유부남이고 아내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성생활에서 욕구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다른 여자와 만나고 다닌다고 털어 놓는다. 그러면서 결혼 이후에 시들해진 부부생활과 그로 인한 불만족을 밖에서 해소하면 가정 생활에 훨씬 더 충실히 임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아마 아내도 자신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이자 자상한 남편으로 살아간다면 섹스가 전부일 뿐인 다른 여자와의 관계도 이해할지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결혼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외도가 비난 받아야 할 일이냐고 묻는 그에게, 저자는 핵심이 완전히 잘못된 고민이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만족스럽지 않은 성생활이 아니라 신뢰를 저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이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그토록 아내를 사랑한다면 불만스러운 부분을 아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이처럼 무턱대고 상대를 힐난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고, 상대방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 중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꼭 짚어내고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저자의 대화 방식은 누구나 다 아는 생각도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힘이 있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 증오심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 우울한 사람,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까지, 현대사회가 만든 역설적인 상황과 사건사고에 뒤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책이다.

<목차>

1. 문제 있는 당신
 - 불안감에 떠는 신부 / 상상 속 남자들을 사랑하는 나 / 물질주의의 독성 등
 2. 이 세상에 살아갈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 카니에라면 어떻게 했을까? / 제 남친은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 악마의 도시 등
 3. 추측, 분노, 집착
 - 외도의 근거 / 착하게만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 분노의 무게 / 바람둥이가 된 당신 등
 4. 흐느낌, 그 다음 단계는 독실한 신앙심
 - 술주정뱅이는 이제 그만 / 절친의 전남친과 만나고 있어요 / 이 배신감을 어찌죠? 등
 5. 정체성, 그리고 (작품이 있든 없든) 예술가로 산다는 것
 - 잃어버린 예술가들의 세상 / 일도 인생도 따분하다면 / 음악과 가족, 양자택일 등
 6. 불확실성의 원칙
 - 친구 사귀기 / 서른여덟, 다 망한 것 같군요 / 부끄러워 마세요 등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헤더 하브릴레스키(Heather Havrilesky)는 「New York」 매거진과 「뉴욕타임즈 북리뷰」, 「LA 타임스」, 「뉴요커」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Salon>에서는 7년간 TV 프로그램 비평가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회고록 『Disaster Preparedness』를 발표했다.

제목 : UNLATCHED

가제 : 고리를 풀어라: 모유 수유의 역사와 논란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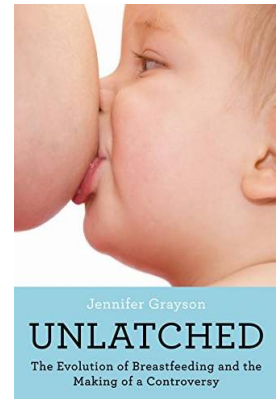
저자 : Jennifer Grayson

출판사: Harper Paperbacks

발행일: 2016년 7월 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건강



워싱턴 포스트 기고기자 Jennifer Grayson 의 모유수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모유수유에 대한 시대별, 지역별 인식 변화, 현대 사회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의 뿌리와 배경

한 여성이 딸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37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를 정도로 화제가 됐고 「USA 투데이」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언론들까지 이 소식을 전했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는 법정에서 모유수유를 해야 하니 휴정해달라는 한 변호사의 요청을 듣고 “억겁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한 정치인이 의회에서 한창 회의가 진행되던 중 생후 8개월 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사진이 포착되어 일파만파 번지면서 한 때 여론이 시끌시끌했다. 미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타겟(Target)이 아기 엄마라면 매장 어디에서든 아이에게 젖을 먹여도 된다는 정책을 도입하여 수많은 엄마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모유만큼 좋은 건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젖을 먹이는 일은 어디까지 적절한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그로 인해 이처럼 수많은 화제와 논란이 연일 이어진다. 모유수유에 관한 이야기가 걸핏하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열띤 논쟁을 부르는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환경 저널리스트이자 두 아이를 모유를 먹여서 키운 경험이 있는 저자는, 어쩌다 수많은 여성들이 모유의 우수함을 잘 알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일로 보아야 할 모유수유를 마다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지 호기심을 느끼고, 전 세계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 사회적, 정치적 요소가 무엇인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18세기 프랑스에서부터 세계 각지에 사는 사람들, 여성 개개인의 생각과 함께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그리고 저자가 직접 경험해 온 모유수유의 현실을 종합하여 무엇이 현재와 같은 논란을 낳았고 모유수유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모색해본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 중인 국가들이나 산업화가 이미 충분히 진행된 국가들은 모유 수유에 있어서 미국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신생아 절반이 영·유아용 조제식(분유)만 먹었던 시대를 거쳐 현재 미국에서는 갓 출산한 여성들의 80 퍼센트 가량이 일단 처음에는 아이에게 모유를 먹인다. 그러나 이들의 절반 정도는 불과 몇 주 만에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이는 방식을 택하거나

모유는 포기하고 분유만 먹이기 시작한다. 미국 소아과학회와 세계보건기구는 아기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려면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만 먹일 것을 권장하지만, 미국에서 이 기준으로 모유만 먹는 아기는 19 퍼센트에 불과하다. 게다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최적의 건강상태’가 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바로 이런 현실을 절감한 저자는 모유수유를 둘러싼 문화적, 정치적, 산업적, 기술적인 정보와 논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직접 모유를 먹이는 여성들이나 모유의 적절성을 논하는 사람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대 사회에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모든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견해들을 다각도로 접할 수 있는 알찬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1. 나는 분유를 먹고 자랐다
2. 아기 예수는 무엇을 먹었을까?
3. 우유의 미스터리, 그리고 엄마의 의무
4. 산업화 세대 vs. 모유수유 세대
5. 의사가 제일 잘 알겠지
6. 아주 특별한 애착
7. 고리를 풀기, 다시 채우기
8. 가슴은 남성들을 위한 것
9. 큰 형제들과 모유수유
10. “완벽한 분유”
11. 인체 실험
12. 젖 떼기

<저자 소개>

제니퍼 그레이슨(Jennifer Grayson)은 「USA 투데이」, 「워싱턴포스트」 등에 환경 분야 기사를 제공하는 기자로 활동해 왔다. MSNBC, CNN 등의 텔레비전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하여 환경 문제와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공해 왔다.

제목: CHINA'S FUTURE

가제: 중국의 미래

저자: David Shambaugh

출판사: Polity

발행일: 2016년 3월 14일

분량: 244 페이지

장르: 경제



‘중진국의 함정’에 들어선 중국, 경제와 정치 민주화의 균형점을 과연 어디에 둘 것인가

전례 없는 성장을 지속하며 그 성과를 즐기던 중국은 이제 경제와 사회, 정치, 국가안보, 국제관계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기점에 도달했다. 세계 경제 전체가 향후 수십 년 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처럼,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분명 세계 전체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이 이 시점에 택하는 방향은 국가 전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번영하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시동이 갑자기 톱 꺼진 자동차처럼 성장이 멈추고 더 이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중국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대대적인 개혁, 그 새로운 흐름을 과연 중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그리하여 기대하는 자들과 우려하는 자들의 의견대로 세계 제 1의 초강대국 자리를 석권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지도자들이 지금 꼭 필요한 변화를 감행할 경우 정권의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개혁을 주춤하게 되어 그로 인해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오히려 정권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 오랫동안 중국을 연구해온 저자는 이와 같은 수많은 추측들이 전부 다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중국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중국은 지도부가 내리는 결정에 무조건 따른다는 점, 그리고 중국 사회 내부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외부에서 추정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과거에 택한 조치나 결정도 중국에서는 결과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 확실한 사실들을 토대로 삼아,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궤도를 궁금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책에서 불투명하기만 한 추측 대신 조금 더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경제적인 민주화가 동반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긴 세월 첨예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현재까지 그 두 가지의 분리 가능성을 보여준 국가는 중국 밖에 없다. 중국을 제외한 신생 산업국가들을 통해서는 민주주의가 현대화의 ‘결과’일뿐만 아니라 현대화를 가속화시키는 ‘촉진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최소한 두 가지가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설명을 단호히 거부해 왔고, 그러면서도 보란 듯이 극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경제가 성숙한 단계에 이른 지금, 다른 신생 산업국가들이 정치시스템의 민주화를 확립한 이후에야 경제가 다시 도약하여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지점에 도달한 중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자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쪽을 택할까, 지금과 같이 독재주의를 고수하는 공격적인 방식을 고수할까? 저자는 중국이 택하는 길에 따라 어떤 결과가 뒤따를 것인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소위 ‘중진국의 함정’이라 불리는 지점에 빠진 중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또 경제와 정치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각종 개혁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예측해본다.

<목차>

1. 중국의 미래, 그 앞에 놓인 경로들
2. 중국의 경제
3. 중국의 사회
4. 중국의 정치
5. 중국의 미래와 세계

<저자 소개>

데이빗 샴보우(David Shambaugh)는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정치와 국제관계를 가르치면서 ‘중국정책프로그램’의 대표를 맡고 있다.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에서도 국제정세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China Goes Global』, 『China's Communist Party』, 『Modernizing China's Military』 등 30여 권이 넘는 저서를 발표했다.